



제22회 포교대상 시상식이 지난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렸다. 포교에 매진해 온 수상자들을 치하하고 포교 원력을 다지는 축제 한마당으로 펼쳐진 시상식 후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위해 총무원장 자승스님, 포교위원장 혜총스님을 중심으로 자리를 함께 했다.

## “종단의 희망과 비전은 포교 활성화에 있다”

‘전법원력 다지는 축제’…제22회 포교대상 시상식  
대행스님, 비구니 스님으로는 처음으로 대상 수상

“이제 법을 전하러 길을 떠나라” 부처님의 전도선언을 마음으로 새기고 포교 현장에서 묵묵히 전법의 한 길을 걸어 온 불자들을 위한 축제 한마당이 열렸다. 조계종 포교원은 지난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제22회 포교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은 대상 수상자인 안양 한마음선원 조실 대행스님을 비롯해 14명의 수상자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사부대중이 함께 포교의 원

력을 다지기 위한 자리로 수상자 활동과 관련된 영상물 시청, 대상, 공로상, 원력상 등 15명에 대한 시상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시상식에서는 1987년 포교대상이 제정된 이후, 비구니 스님으로는 처음으로 대행스님이 대상을 수상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정면스님 등 4명이 공로상을, 마산 일법사 주지 지대스님 등 10명이 원력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으며, 참석 사부대중은 수상자들에게 박수갈

채를 보내며 수상을 축하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33대 총무원 집행부는 교육과 포교를 통한 불교중흥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불교가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는 종교가 되도록 사부대중이 힘과 원력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총무원장 스님은 “지금까지 참석했던 많은 행사 중에서 오늘 이 자리처럼 축제분위기 속에서 환희심이 넘치는 모습은 처음”이라며 “한국 불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포교위원장 혜총스님은 “종단의 희망과 비전은 포교에 있다”고 전제한 뒤, “포교대상 시상식은 각양각지에서 하심과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포교에 큰 자취를 남긴 분들을 모시고 그 공로를 격려하고 치하하여 포교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축제”라며 “이번 시상식을 계기로 전법과 포교의 원력을 굳게 다지고 전세계를 불국토를 만들어 가는 데 불퇴전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시상식에 이어 니르바나 실내악단의 축하공연이 펼쳐졌으며, 수상자들의 기념촬영이 끝나고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다과회가 진행됐다.

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 홍성군 공무원연수 유치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본부장 혜오스님)이 충남 홍성군청 공무원 연수를 유치했다.

전통불교문화원은 15일부터 16일,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두차례에 걸쳐 홍성군청 공무원 8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

지난 9월 (주)에듀맥스와 연수 활성화를 위한 협약 체결 후 처음으로 홍성군청 공무원 연수를 유치한 것이다.

전통불교문화원과 ‘공무원 연수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맺은 (주)에듀맥스는 ‘하나 꽃 공직가치 교육과정’이란 명칭으로 중앙 및 지방 공무원 연수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주)에듀맥스는 공직자·기업 연수 교육 전문업체로서 분야에서 1~2위를 다투는 업체이다.

전통불교문화원은 “에듀맥스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연수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 “불교신문 문화사업단 포교원 신도정책 중요”

총무원장 특보단장에 정념스님 임명



성욕스님. 제3교구본사 신홍사 총무국장, 총무원 사회부장,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설악산 봉정암·양

양 낙산사 주지, 초심회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양양 낙산사 한주로 제15대 중앙종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성수·임태규 기자

### 일한 불교교류협회장 韓 종단협 회장 예방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8일 일한불교교류협회장 미야바시 쇼겐 스님의 예방을 받고 환담했다. 이날 미야바시 쇼겐 스님은 “관월당 반환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면서 “2012년도 WFB 한국대회 유치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스님과 미야바시 쇼겐 스님은 한일불교 교류 활성화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 “낮은 자세로 종도 받들 것”

지흥스님 등 무소속 종회의원 7명

종책모임에 참여하지 않은 지흥스님과 지현스님 등 중앙종회의원 7명이 “낮은 자세로 종도들의 고견을 소중히 받드는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공동임장을 발표했다. 지흥·지현·법안·성우·원해·적현·삼혜스님은 제185회 정기회가 폐회된 지난 1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앙종회의원의 올바른 역할과 자세에 대한 각오’를 밝히는 임장을 발표했다.

이들 종회의원 스님들은 종단 내 이해관계의 대표적 기관으로 비춰지고 있는 중앙종회의 현실에 냉엄한 자기성찰을 한다”면서 “중앙종회가 종단 내외적으로 신뢰받고 존중받는 기관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제 스님들은 △대의기관의 위

상 정립을 위한 의정 활동 △종단 내외의 합리적 여론 수렴과 반영 △입법기관의 기능에 걸맞은 활동 △종회 내 인사선출제도 개선 △총무원에 대한 올바른 견제와 비판으로 미래지향적인 정책 대안 제시 △각종책모임의 중재와 조정·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7명의 스님들은 또한 “종책모임에 소속되지 않은 저희 종회의원들은 각자의 종단관에 입각한 원력과 소신의 의정활동을 존중할 것”이라며 “그 기준은 종도들의 기대와 요구에 의한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합리적 기초위에서 활동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 현장에서

‘전국사찰순회 자원봉사교육’을 근간으로 한 ‘불교자원봉사 전국네트워킹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덕숭총림 수덕사 본·말사 16곳 700여 명의 신도가 지난 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자원봉사교육을 이수한 뒤 전국 교구본사 가운데 최초로 지난 10월 ‘자원봉사센터’를 발족하며 본격적인 불교자원봉사 실천의 길에 뛰어들었다.

수덕사에 이어 제8교구본사 지지사도 불교자원봉사 전국네트워킹사업에 동참했으며 다른 교구본사에

### 불자들 자원봉사 욕구 크다

서도 동참의사를 타진하며 사업이 점차 활기를 띠고 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불교신문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사찰 자원봉사단 결성 및 활성화 뿐만 아니라 각 사찰 자원봉사단을 지원하고 상호 연계하는 자비나눔 실천의 장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는 보살행을 통해 지역 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자연스레 한국불교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자원봉사교육 취재과정에서 본 교육생은 크게 두 가지다. 자원봉사

에 뜻은 없지만 주지 스님이 나오라고 해서 참여한 경우와 자원봉사를 이미 하고 있거나 이번 기회를 계기로 자원봉사에 뛰어 들고 싶어서 온 경우이다. 하지만 자원봉사에 대한 높은 사회적 참여와 관심을 반영하듯 취재과정에서 전자보다 후자의 반응이 생각보다 많음을 알게 됐다.

사찰이나 불교단체라는 타이틀이 아니더라도 부녀회와 적십자사 봉사단, 지역모임, 친목회 등 다양한 단체를 통해 자원봉사활동을 이미 전개하는 불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또한 단체에 소속되지 않더라도 개

인적으로 꾸준히 자원봉사를 후원을 아끼지 않는 불자도 많다.

우리 사찰 신도들은 ‘나이가 많아서’ ‘절에서 뭘 하라고 하면 잘 안해서’ 등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 자원봉사활동에 주저하는 사찰이 많다. 그 사찰에 우선 자원봉사교육부터 해보라고 제안하고 싶다. 신도들 가운데 이미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거나 계기가 되면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불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ibulgyo.com



사/작/보/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만원의 보시로 행하는 萬가지 자비보살행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소외된 이웃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하여

여러분과 함께 만행(萬行)의 길을 떠나고자 합니다.

- 소외계층 난치병환아를 위한 萬行
- 국내 외 빈곤, 결식아동을 위한 萬行
- 국내 저소득층소년의 꿈을 찾아주기 위한 萬行
- 소년 소녀가장을 위한 萬行
- 다문화가족 정착을 위한 萬行
- 국내 외 긴급재난 구호활동을 위한 萬行
- 호스피스 활동지원을 위한 萬行

| 만행동참방법 |

- 신청서
- 홈페이지 : [www.Sharemind.or.kr](http://www.Sharemind.or.kr)  
: [www.만행.com](http://www.만행.com)
- 팩 스 : 02-739-2047
- 우편접수 :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3번지 전법회관 6층 만행담당자앞
- 문 의 : 02-723-5101~2

| 만행동참계좌 |

- 농협 301-0058-8672-51
- 국민 006001-04-229831 (예금주 : 조계종사회복지재단)
- \* 보내주신 후원금은 기부금 특별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유관급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 \* 만원의 후원자 만명을 모시고자 합니다.
- \* 만행운동홍보를 함께하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소외된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지 못한  
모진 마음을 참회 합니다

萬行